‘위기의 남자’ 유상철, 이겨야 산다



대전 시티즌이 K리그 꼴찌로 추락하면서 유상철 감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대전 1승 8패 꼴찌…강등권 ‘적신호’
새 대표 선임후 감독 경질 소문 흉흉
오늘 3위 울산과 운명을 건 한판싸움

대전 시티즌 유상철(41) 감독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대전은 9라운드를 마친 현재 1승8패(승점 3)로 꼴찌다. 4골을 넣고 17골을 내줬다. 이대로라면 상위 8팀과 하위 8팀을 나누는 스플릿시스템에서 하위리그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강등 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전은 28일 3위 울산 현대와 K리그 10라운드를 치른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다.

●어수선한 분위기

대전은 어수선하다. 시즌 개막 이후 대전이 6연패에 빠졌을 때 축구인들 사이에서 “대전이 7연패를 당하면 유상철 감독이 경질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대전은 다행히 11일 7라운드 상주 원정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가까스로 연패를 끊었다.

대전 전력강화팀 최은식 팀장은 “감독 계약의 세부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7연패 경질) 조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대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7연패 조항은 없지만 15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항의 사실 여부를 떠나 팀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방증이다.

일부에서는 대전의 부진이 길어지면 새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 유 감독이 경질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은 현재 새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중이다. 첫 번째 공모에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 공모했고, 8인이 지원해 최종 3인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대전 채승목 홍보팀장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5월 중순쯤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될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대전이 그 때까지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새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령탑이 전격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수의 진

대전은 배수의 진을 치고 울산을 상대한다. 울산은 화려한 현역시절을 보낸 유 감독의 친정팀이다. 유 감독이 작년 7월 대전 지휘봉을 잡은 뒤 8월20일 울산과 맞대결에서 1-0으로 승리한 것을 포함해 대전은 작년 울산과 정규리그 2차례 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유 감독은 신인 공격수 한그루(24)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한그루는 22일 전남 원정에서 후반 7분 케빈(벨기에) 대신 들어가 최전방에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11일 상주전 2도움에 이어 전남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김형범(28) 또한 울산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유 감독은 “울산과는 작년에 두 번 맞붙어 두 번 다 이겼다. 개인적으로 가장 지고 싶지 않은 팀이기도 하다. 울산은 힘과 높이를 모두 갖춘 쉽지 않은 팀이지만, 체력적으로 지친 울산이 우리를 이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K리그 10R 관전포인트

28일(토)

울산 vs 대전
오후 3시 울산문수경기장
상대전적 27승14무11패(홈 팀 기준)
UBC울산(생), CMB대전(생)

최근 5경기 무패(2승 3무)행진 이어가는 울산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최근 홈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의 흐름을 2연패에 빠진 대전이 꺾기는 어려울 듯.

수원 vs 성남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상대전적 22승18무17패
TV조선(생), T브로드(생)

닭과 말의 대결의 승자는? 요즘 3승2무의 호조를 보이는 수원. 올 시즌 홈 5전 전승에, 홈 전 경기 무실점까지. 최근 3연승 속 원정 3연승 챙긴 성남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듯.

대구 vs 포항
오후 3시 대구스타디움
상대전적 5승10무12패
SPOTV2(생, IPTV), 대구MBC(생)

3연패 이후 9라운드 상주전 승리한 대구. 믿을 구석은 최근 포항전 3경기 연속 무패(1승2무)라는 사실. 포항은 대구 원정 10경기 연속 무패(5승5무)의 흐름에 큰 기대.

상주 vs 부산
오후 5시 상주시민운동장
상대전적 1무2패
SPOTV2(생, IPTV)

‘질식수비’ 내세운 부산은 최근 5경기 무실점, 무패(3승2무) 중. 원정 4경기 무패(2승2무) 역시 또 다른 자랑거리. 상주는 대체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할까.

29일(일)

전남 vs 인천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
상대전적 5승8무8패

2무2패 후 대전전 승리로 상승세 탄 전남. 당시 1골 2도움 올린 윤석영의 발끝에 큰 기대를 걸어야. 8연패의 인천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시급.

강원 vs 서울
오후 3시 강릉종합운동장
상대전적 1승5패
SPOTV2(생, IPTV), CJ헬로비전 영동(생)

미뤄진 울산과 8라운드 원정전에서 2골 몰아친 데얀의 상승세가 서울이 가진 최상의 카드. 강원만 만나면 승승장구 5연승 신바람. 강원의 복수혈전은 과연 가능할지.

제주 vs 경남
오후 5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상대전적 3승9무5패

최근 6경기 연속 무패(4승2무)의 제주. 상승세의 주역은 단연 2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린 산토스. 최근 1무1패의 경남으로서는 ‘지지 않는’ 경기가 최선의 시나리오?



전북 현대 김정우(오른쪽 두 번째)가 27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와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전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전북, 골!골!골!골!골!…닥공? 닥골!

임유환·김정우 등 5명 광주전 폭죽쇼
3경기만에 V…선두권 진입 본격시동

Hyundai Oilbank K·LEAGUE 2012 〈10R〉

전북 현대가 광주FC의 추격을 따돌리고 호남 더비에서 승리하며 4위로 점프했다.

전북은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0라운드 홈경기에서 임유환, 김정우, 에닝요, 드로겟, 김동찬이 각 1골씩 터트려 지역 라이벌 광주FC를 5-2로 제압했다.

최근 2경기 연속 단 한골도 넣지 못하고 1무1패를 기록했던 전북은 5골을 폭발시키며 승리, 5승2무3패(승점17)를 마크하며 경기가 없던 FC서울(4승4무1패 승점16)을 5위로 밀어냈다. 광주(3승4무3패)는 4월에 가진 6경기에서 3무3패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순위를 올리는데 실패했다.

팀 내 최다 골(6골)을 넣고 있는 이동국이 경고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전북은 색다른 공격라인업을 구성해 광주전에 나섰다.

최전방 공격수는 정성훈이 맡았고, 그 뒤를 김정우가 받쳤다. 최근 페이스가 뚝 떨어진 용병 에닝요를 대신해 스피드가 좋은 이승현이 오른쪽 윙어를 맡았다. 왼쪽 윙으로는 기술이 좋은 드로겟이 출전했다. 공격라인에 변화를 준 전북 이흥실 감독의 전략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

경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은 전북은 전반 17분 만에 선제골을 뽑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드로겟이 크로스한 볼을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임유환이 정확하게 골로 성공시켰다. 기세가 오른 전북은 추가골을 넣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5분 뒤 역습상황에서 드로겟이 문전으로 침투 패스한 것을 김정우가 달려들며 왼발로 슈팅해 광주의 골문을 또 열었다.

전반 종료 직전 광주의 김은선에서 헤딩골을 허용한 전북은 후반 들어 에닝요를 교체로 투입하면서 지친 광주 수비수들을 공략해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 김정우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파고들다 광주 수비수 정우인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에닝요는 오른발로 강하게 차 3번째 골을 넣었다.

전북은 후반 31분 세트피스에서 김은선에게 다시 골을 허용했지만 8분 뒤 드로겟이 박원재의 패스를 받아 골을 터트려 광주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드로겟은 이날만 1골 2도움을 올려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전북은 후반 40분 교체로 출전한 김동찬이 3분 만에 승리의 축포를 쏴 승부를 결정지었다.

광주는 후반 35분까지 2-3으로 따라붙으며 분전했지만 이후 수비라인이 붕괴되면서 연속 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시즌 첫 ‘마계대전’…수원의 복수 성공할까

▌K리그 10R ‘라이벌 전쟁’ 불꽃

작년 성남에 FA컵 우승·챔스티켓 뺏겨
황선홍, 대구전 무승 징크스 올핸 깨나

주말 벌어질 K리그 10라운드는 지역 라이벌전이 연이어 벌어진다. 호남 더비로 27일 열린 전북 현대와 광주FC전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경기도 지역을 연고지로 사용하는 수원 삼성과 성남 일화가 맞붙는다. 같은 시간에 대구에서는 대구FC와 포항 스틸러스가 경기를 펼친다. 팀 전력과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라이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들 구단 사이에는 다양한 사연이 얽혀 있다. 라이벌이라고해도 손색이 없다.

●수원 VS 성남

두 팀간 경기가 마계(馬鷄)대전으로 불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2년 전부터 두 구단은 앙숙이 됐다. 2년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만난 두 팀. 당시 폭염으로 성남의 홈구장 잔디가 완전히 망가졌다. 수원 윤성효 감독은 “조기축구회도 이런 구장에서는 볼을 차지 않는다”고 도발했다. 결국 두 감독이 설전을 벌였고, 치열한 승부 끝에 성남이 승리해 결승전에 올랐다. 지난해 FA컵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은 애매한 판정으로 명암이 엇갈렸다.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결승골이 나와 성남이 우승 티켓을 거머쥐며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다. 억울하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친 수원은 또 다시 성남과의 악연에 울어야 했다. 수원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성남의 핵심멤버였던 라돈치치와 조동건을 동시에 영입했다. 성남은 시즌 초반 그들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마계대전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궁금하다.

●대구 VS 포항

지난 시즌 포항은 리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대구만 만나면 힘을 못 썼다. 컵 대회 포함 총 3차례 대결을 펼쳐 2무1패. 단 한번의 승리도 맛보지 못했다.

그 속에는 묘한 사연이 숨어있다. 포항 황선홍 감독은 지난해까지 대구 지휘봉을 잡았던 이영진 감독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부산에서 감독생활을 할 때부터 이어져 온 징크스였다. 부산 시절 황 감독은 이 감독과 수원 윤성효 감독을 상대로만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포항으로 팀을 옮겨 윤 감독은 한 차례 꺾었다. 하지만 이 감독을 꺾는데 실패했다. 황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설욕을 준비하고 있다. 천적이었던 이 감독이 대구를 떠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대구를 반드시 꺾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아픔을 되갚아줄 기회다. 부상자들도 모두 돌아와 전력이 탄탄해졌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와 달리 전력이 한층 안정돼 중위권에 올라있다.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된다.

최용석 기자

‘라돈치치 체포작전’ 주연은 사샤

“고양이 앞에 쥐지.”

성남 일화 신태용 감독이 28일 수원 삼성과 K리그 10라운드 원정을 앞두고 이 같이 말했다. 고양이는 성남 중앙수비수 사샤(33·호주), 쥐는 수원 공격수 라돈치치(29·몬테네그로)를 뜻한다.

올 시즌 앞두고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적한 라돈치치는 팀 공격의 핵심이다. 9경기에서 6골을 터뜨렸다. 반면 사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3월16일 울산전 이후 정규리그에서 뛰지 못했다. 이번 수원전이 한 달여 만의 복귀전이 될 전망.

기록만 놓고 보면 라돈치치가 사샤보다 한 수 위다. 그러나 신 감독은 사샤를 믿는다. 신 감독은 감독대행으로 처음 성남 지휘봉을 잡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두 선수와 3시즌을 함께 했다. 사샤가 라돈치치의 천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사샤는 195cm, 95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터프한 몸싸움을 즐겨 한다. 라돈치치 역시 192cm, 89kg이지만 몸싸움에 약하다. 일대일 매치업은 사샤가 월등하다. 신 감독은 “5대2 볼 뺏기 게임이나 패스 게임을 해도 라돈치치는 사샤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사샤는 라돈치치를 ‘빅 베이비’라 부른다. 덩치 크고 나이만 들었지 하는 행동은 아이 같다는 의미다. 라돈치치가 훈련 도중 꾀를 부리거나 경기에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샤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신 감독은 이런 역학관계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사샤가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하는 만큼 무리하게 선발로 내보내지 않고 교체 투입을 고려 중이다. 일단 사샤가 그라운드를 밟으면 라돈치치를 꽁꽁 묶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신 감독은 “미리 말하지 않겠다. 사샤가 라돈치치를 어떻게 봉쇄하는 지 경기를 통해 자연스레 확인하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태석 기자

